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문헌분석: (1992년~2014년을 중심으로)

송희선*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이영철**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요약》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지적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를 실행한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총 21편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재목적은 의사소통기능의 향상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중재가 유아와 초등학생연령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았음을 볼 때 유아 및 초등학생에게 많이 적용하는 중재임을 볼 수 있었다. 중재장소로는 학교와 복지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재시간은 별도시간과 놀이시간, 특별시간, 간식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별도구로는 지능검사와 적응검사, 언어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52.4%로 나타났고 지능검사는 KEDI-WISC와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19%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진단도구사용은 교육진단검사가 42.9%로 나타났다. 셋째,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PND는 중재초기에는 중간정도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가 기초선-중재 1기에 높은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 보다 환경중심언어중재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제어 : 환경중심언어중재,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 지적장애아동, 의사소통기능, 문헌분석

* 제 1저자(songhieeon@hanmail.net)

** 교신저자(yclee79@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언어이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과 언어를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고 전달받기도 한다. 의사소통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언어를 매체로 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자극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말로써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발달시킬 수 있다(박일수, 2007).

의사소통 능력은 초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성과 몸짓을 사용하면서 점차 확장되는 언어능력과 함께 발달되며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차 능력을 확장시켜 나간다고 한다(정소영, 김삼섭, 2012). 그러나 일반 아동과 달리 지적장애 아동은 사회적 결함과 인지적 결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능력을 제한받게 되고 상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김영환, 1991; Fujiki & Brinton, 1991). 이런 의사소통 질적 결함으로 지적장애아동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환경에서 적절히 상호작용하며 적응하는데 한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지적장애아동 교육에 의사소통과 언어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결과로 지적장애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언어중재가 필요하게 되었다(Kaiser, 1993; Owens, 1995).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일상적인 실제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 전략을 연습할 기회를 많이 가지는 상황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지적장애 아동의 언어문제는 사회적응능력, 감각기관의 손실정도, 이들 능력의 발달과 성숙의 언어학적 측면을 연결해서 다루어야 하고, 교정 또는 치료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독특한 요구에 맞는 적절한 언어중재는 특수교육 영역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이영리, 2005).

대부분의 전통적인 언어중재방법은 구조화된 개인지도 접근을 시도하여 지적장애 아동의 어휘수 증가, 발화길이 증가, 조음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일상 환경이나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일반화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Hert & Risley, 1980; Hemmeter & Kaiser, 1994).

환경중심 언어중재는 기능적인 언어기술을 교수하기 위한 자연적인 전략으로(Kaiser, Yoder, Keetz 1992),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아동의 환경속에서 아동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언어중재를 한다는 포괄적인 중재 접근방법이다(김윤정, 2011). 이와 같은 환경중심 언어중재를 적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환경중심 언어중재만으로는 아동의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기에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

의 제한점들이 인식되면서 아동의 환경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아동의 의사소통행동이나 시도에 보다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언어습득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중심 언어중재에 대한 수정안들이 제안되었다(김영태, 2002).

그 중에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는 아동의 언어를 촉진하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을 조절하고,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에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대화의 기초를 제공하며, 기능적인 맥락에서 언어를 사용·습득하도록 촉진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아동의 언어학습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환경조절 전략을 체계적으로 포함시키고 아동의 목표 수준에서 말하고 아동의 발화를 확장하여 적절한 언어 모델링을 제시하는데 이는 성인-아동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킨다(김윤정, 2011).

지적장애아동 대상으로 환경중심 언어중재를 적용한 연구(박은희, 1992; 이영철, 1995; 김소라, 이영철, 2001)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수정·보완한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 연구들이(이정인, 2010; 박서연, 2011; 신연경, 2013) 실행되어 왔다. 김윤정(2011)은 발달장애대상으로 언어중재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고 박지윤(2012)은 자폐범주성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적장애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지는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박지윤(2012)은 최근 15년동안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중재가 환경중심언어중재와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Simpson 등(2005)의 중재구분의 성과가 기대되는 실제에 환경중심중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과가 기대되는 실제(promising practices)는 과학적 기반의 실제로 고려되기에는 추가적인 과학적 자료가 더 필요하지만 자폐아동들에 대한 효율성과 유용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 되는 방법을 의미한다(이소현 역, 2005). 박은희(1992)의 연구 이후 현재까지 환경중심언어중재나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를 지적장애아동에게만 적용한 문헌들을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언어중재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성별, 생활연령, 진단도구, 적응행동검사, 의사소통 진단도구의 유형, 실험장소, 중재자, 실험설계, 실험회기, 실험시간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중심 언어중재에서 사용되는 우발학습, 시간지연, 모델링, 요구-모델 기법을 모두 적용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2 ~ 3개의 기법들만으로 수행한 연구들도 있었으며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도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물들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연구방법상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환경중심언어중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환경중심언어 중재가 언어학습초기 단계에 있는 아동, 어휘나 초기의미관계를 학습하고 있는 아동, 자주 발화하지 않는 아동에게 적절하다는 주장(Kaiser, Yoder, Keetz 1992)대로 다양한 표현 언어 연령대에 있는 지적장애아동 대상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교, 복지관, 치료실등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중재를 위해서 진단도구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중

재목적, 중재대상연령, 중재장소, 중재상황은 어떠한지, 중재자는 누구인지, 어떤 전략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언어발달연령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지, 환경중심언어중재와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방법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환경중심언어중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 요약, 분석해서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문제

지적장애아동 대상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연구 문헌 분석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적장애아동 대상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특성(중재목적, 중재대상 연령, 중재장소, 중재상황, 실험설계, 기초선-중재-유지-일반화실시율, 신뢰도/타당도/중재충실도 실시율)은 어떠한가?
- 둘째, 진단도구의 특성(선별도구, 지능검사, 적응검사, 의사소통 진단도구)은 어떠한가?
- 셋째, 환경중심 언어중재 대상의 언어발달(표현언어)연령의 효과는 어떠한가?
- 넷째, 환경중심 언어중재와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자료 수집 범위는 199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누리미디어(DBpia), 교보문고스콜라, 학지사뉴논문, 한국학술정보원(KISS)의 정보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검색 후 나온 논문 가운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을 선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검색된 자료는 '환경중심 언어중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환경' '언어'의 두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본 연구 주제와 관련 없는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대상은 '지적장애유아, 정신지체유아, 지적장애

아동, 정신지체아동’이었다. 따라서 자폐성, 뇌성마비, 언어발달장애, 발달장애등을 대상으로 환경중심 언어중재를 실시한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다기초선 설계, ABAB설계, 사전-사후, 사례연구등의 실험 설계를 적용한 연구 논문만을 선정하였다.

넷째, 동일한 연구물이 2중으로 출간된 경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검색방법으로 1차 선정된 자료는 총 87편이었으며 연구대상과 실험 설계 및 선정기준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료는 총21편이었다.

2. 자료 분석 절차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언어중재 연구의 국내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김윤정(2011), 박지윤, 이은주(2012), 방지희(2013), 한성희, 남윤석(2005)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보완, 수정하여서 사용하였다.

첫째,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특성(중재목적, 중재대상연령, 중재장소, 중재상황, 실험설계, 기초선-중재-유지-일반화 실시율, 신뢰도/타당도/중재충실도 실시율)은 기술통계량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진단도구의 특성(선별도구, 지능검사, 적응검사, 의사소통 진단도구)은 기술통계량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환경중심 언어중재 후 대상의 언어발달연령(표현언어)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PND로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중심언어중재방법들은 기술통계량으로 제시하였으나 환경중심언어중재와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의 효과의 크기는 PND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자료분석 틀

연구문제	분석요인	분석준거
연구의 특성	중재목적, 중재대상연령, 중재장소, 중재상황, 실험설계, 기초선-중재-유지-일반화 실시율 신뢰도-타당도-중재충실도 실시율	기술통계량
진단도구 특성	선별도구, 지능검사, 적응검사, 의사소통발달진단도구	기술통계량
언어발달연령	언어발달연령에 따른 기초선-중재-유지기-일반화 효과	PND
환경중심언어중재/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 효과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유지기-일반화 효과	PND
	환경중심 언어중재/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 방법의 종류	기술통계량

이 연구에서는 비중복자료(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point: PND)로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PND는 단일대상연구의 효과크기에 신뢰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기초선에서 얻은 가장 높은 점수보다 향상된 점수를 보인 중재기간의 회기를 처리기간의 총 회기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다(Scruggs & Mastropieri, 1998; 박일수, 2007; 박지윤, 이은주, 2012). 해석 방법의 준거는 PND 중위수가 90% 초과일때는 큰 효과가 있으며, 70%초과에서 90%이하일 때는 중간효과, 50%초과에서 70%이하일 때는 효과가 적음으로 해석하고 50% 이하일 때는 효과가 없음으로 분류한다(이성용, 김진호, 2011). 그래프와 표가 동시에 나와 있으며 수치가 나와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했으며 ABAB설계, 사전사후 설계, 중다 기초선 설계이지만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PND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언어발달연령에 따른 효과와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재, 유지, 일반화에 대해 비중복 비율(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point: PND)의 중앙값과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중복 비율을 계산하고,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여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통계에 활용한 통계방법은 Mann-Whitney, Kruskal-Wallis 검증을 사용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은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기법이지만 표본 크기가 작아 정규성 가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비모수 검정법인 Mann-Whitney를 사용하며 세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 기법이 사용되지만 표본 크기가 작아 정규성 가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사용한다.

3. 신뢰도

분석자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언어치료를 전공하고 임상경험(13년)이 있는 1인이 함께 분석대상 21편 연구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분석자간 신뢰도 산출방법은 두 연구자간의 일치된 수를 일치된 수와 불일치된 수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분석자간 평균 신뢰도는 90.47%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언어중재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199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행된 국내 실험논문 21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특성은 요약 표는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각 분석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1. 지적장애아동 대상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특성

중재설계의 특징으로 중재목적, 중재대상연령, 중재장소, 중재상황, 실험설계, 기초선-중재-유지-일반화실시율, 신뢰도-타당도-충실도 실시율 유무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1) 중재목적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중재목적은 <표 2>과 같다.

<표 2> 중재목적

구분	N	%
의사소통기능	6	28.6
언어능력향상 및 일반화	4	19.0
언어능력향상	3	14.3
자발화	3	14.3
어휘	2	9.5
자발화 및 일반화	1	4.8
자발화 및 반응어	1	4.8
의사소통기능 및 자발화	1	4.8
합계	21	100.0

중재목적으로는 ‘의사소통기능’이 6편(28.6%)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능력향상 4편(19%), 언어능력향상과 자발화는 각각 3편씩(14.3%)으로 나타났다.

2) 중재대상연령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중재대상연령은 <표 3>와 같다.

<표 3> 중재대상연령

구분	N	%
5세~7세	11	17.5
8세~10세	21	33.3
11세~13세	13	20.6
14세~16세	8	12.7
17세~19세	4	6.3
20세 이상	6	9.5
합계	63	100.0

5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중재대상 연령은 ‘8세~10세’가 21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11세~13세’가 13명(20.6%), ‘14세~16세’가 8명(12.7%)으로 나타났다.

3) 중재장소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중재장소는 <표 4>와 같다.

<표 4> 중재장소

구분	N	%
학교	10	47.6
복지관	4	19.0
학교, 기숙사	1	4.8
기숙사	1	4.8
유치원	1	4.8
주간보호실	1	4.8
언어치료실	1	4.8
집	1	4.8
미기재	1	4.8
합계	21	100.0

중재장소는 ‘학교’ 10편(47.66%), ‘복지관’ 4편(19.0%), ‘학교, 기숙사’, ‘기숙사’, ‘유치원’은 각각 1편씩(4.8)으로 나타났다.

4) 중재상황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중재상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중재상황

구분	N	%
별도시간	6	28.6
놀이시간	3	14.3
특별시간	3	14.3
간식시간	3	14.3
방과후	2	9.5
놀이시간, 점심시간	1	4.8
자유선택, 미술활동, 점심시간	1	4.8
점심시간	1	4.8
언급 없음	1	4.8
합계	21	100.0

중재상황은 ‘별도시간’ 6편(28.6%), ‘놀이시간’, ‘특별시간’, ‘간식시간’은 각각 3편(14.3)으로 나타났다.

5) 실험설계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실험설계는 <표 6>와 같다.

<표 6> 실험설계

구분	N	%
중다기초선	16	76.2
설계사례연구	2	9.5
ABAB	1	4.8
사전사후	1	4.8
중다탐사실험설계	1	4.8
합계	21	100.0

실험설계는 ‘중다기초선’ 16편(76.2%)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례연구’가 2편(9.5%)으로 나타났다.

6) 기초선-중재-유지-일반화 실시율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기초선-중재-유지-일반화실시율은 <표 7>과 같다.

<표 7> 기초선-중재-유지-일반화 실시율

구분	N	%
기초선-중재	20	95.2
기초선-중재-유지	19	90.5
기초선-중재-유지-일반화	11	52.4
언급 없음	1	4.8

유지와 일반화를 모두 실시한 연구는 11편(52.4%)이었고, 유지만 실시한 연구는 19편(90.5%)로 나타났다.

7) 신뢰도, 타당도, 중재충실도 실시율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신뢰도-타당도-중재충실도 실시율은 <표 8>과 같다.

<표 8> 신뢰도, 타당도, 중재충실도 실시율

구분	N	%
신뢰도	19	90.5
타당도	2	9.5
중재충실도	2	9.5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19편(90.5%)이었고, 중재충실도 및 타당도를 실시한 연구는 각각 2편(9.5%)으로 나타났다.

2. 진단도구의 특성

1) 선별도구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선별도구는 <표 9>과 같다.

<표 9> 선별도구

구분	N	%
지능검사, 적응검사, 언어검사	11	52.4
지능검사, 언어검사	5	23.8
지능검사, 적응검사, 언어검사, 기타검사	2	9.5
지능검사	2	9.5
적응검사, 언어검사	1	4.8
합계	21	100.0

선별도구는 ‘지능검사, 적응검사, 언어검사’를 함께 사용한 연구가 11편(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능검사, 언어검사’를 함께 사용한 연구가 5편(23.8%)으로 나타났다.

2) 지능검사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지능검사는 <표 10>와 같다.

<표 10> 지능검사

구분	N	%
KEDI-WISC	4	19.0
KEDI-WISC,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	4	19.0
없음	3	14.3
한국웍슬러아동지능검사(K-WPPSI)	2	9.5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	2	9.5
K-ABC	2	9.5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 대협식정신박약아용 지능검사기	1	4.8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 ISE-인지발달척도(1994)	1	4.8
K-K-MDT(한국판 Kohs 정신발달검사)	1	4.8
유아지능발달검사	1	4.8
합계	21	100.0

지능검사 도구는 ‘KEDI-WISC’와 ‘KEDI-WISC 와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를 함께 사용한 연구가 각각 4편(19%), 지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편(14.3%), 으로 나타났다.

3) 적응검사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적응검사는 <표 11>과 같다.

<표 11> 적응검사

구분	N	%
사회성속도검사	10	47.6
언급 없음	7	33.3
사회성속도검사, 기타(CARS, 상징행동발달연령)	1	4.8
K-CDI 발달검사	1	4.8
K-ABS(적응행동검사)	1	4.8
사회성속도검사, K-CDI 발달검사, 기타(CARS, 상징행동발달연령)	1	4.8
합계	21	100.0

적응검사 도구는 ‘사회성속도검사’가 10편(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응검사 도구를 언급하지 않은 연구도 7편(33.3%) 으로 나타났다.

4) 의사소통진단도구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의사소통진단도구는 <표 12>와 같다.

<표 12> 의사소통발달진단도구

구분	N	%
교육진단검사	9	42.9
그림 어휘력 검사 PPVT-R, PRES (취학전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2	9.5
PRES(취학전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2	9.5
언급없음	2	9.5
PRES(취학전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현재의사소통능력	1	4.8
PLS	1	4.8
SLESI(영유아언어발달검사)	1	4.8
언어이해, 인지력검사 및 그림 어휘력 검사, 교육진단검사	1	4.8
사회적 언어기능 분석, 교육진단검사	1	42.9
그림 어휘력 검사 PPVT-R, PLS	1	9.5
합계	21	100.0

의사소통발달 진단은 ‘교육진단검사’를 한 연구가 9편(42.9%)으로 가장 많았다.

3. 언어발달(표현언어) 연령의 효과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언어발달(표현언어)연령은<표 13>과 같다.

<표 13> 언어발달(표현언어) 연령

구분	N	%
3세 미만	17	27.0
3세~4세 미만	21	33.3
4세~5세 미만	12	19.0
5세 이상	12	19.0
합계	62	100.0

언어발달 연령은 ‘3세~4세 미만’이 21명(33.3%), ‘3세 미만’ 17명(27%), ‘4세~5세 미만’과 ‘5세이상’이 12명(19%)으로 나타났다.

1)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중재 1기 효과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중재 1기 효과는 <표 14>과 같다.

<표 14>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중재 1기 효과

구분	n	PND				χ^2
		Med	M	Min	Max	
3세 미만	13	96.5	91.3	50.0	100.0	.085
3세~4세 미만	16	100.0	89.9	61.1	100.0	
4세~5세 미만	10	97.6	93.3	76.1	100.0	
5세 이상	11	86.1	80.2	40.0	100.0	

기초선-중재1기 효과에서 언어발달 연령이 '3세 미만'은 13명(96.5%)의 효과를, '3세~4세 미만'은 16명(100%)의 효과를, '4세~5세 미만'은 10명(97.6%)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고, '5세 이상'은 11명(86.1%)으로 중간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다.

Kruskal-Wallis 검정 결과, 언어발달 연령에 따라 기초선-중재1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중재 2기 효과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중재 2기 효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중재 2기 효과

구분	n	PND				Z
		Med	M	Min	Max	
3세 미만	1	100.0	100.0	100.0	100.0	.000
4세~5세 미만	3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중재 2기 효과에서 언어발달 연령이 '3세 미만'은 1명으로 100.0%의 높은 효과를, '4세~5세 미만'은 3명으로 100.0%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Mann-Whitney 검정 결과, 언어발달 연령에 따라 기초선-중재2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중재 3기 효과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중재 3기 효과는 <표 16>와 같다.

<표 16>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중재 3기 효과

구분	n	PND			
		Med	M	Min	Max
4세~5세 미만	3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중재 3기 효과에서 언어발달 연령이 '4세~5세 미만'은 3명으로 100.0%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4)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유지기 효과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유지기 효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유지기 효과

구분	n	PND				χ^2
		Med	M	Min	Max	
3세 미만	12	100.0	100.0	100.0	100.0	4.160
3세~4세 미만	16	100.0	89.4	0.0	100.0	
4세~5세 미만	9	100.0	100.0	100.0	100.0	
5세 이상	9	100.0	84.4	0.0	100.0	

기초선-유지기 효과에서 언어발달 연령이 '3세 미만'은 12명으로 100.0%의 효과를, '3세~4세 미만'은 16명으로 100.0%의 효과를, '4세~5세 미만'은 9명으로 100.0%의 효과를, '5세 이상'은 9명으로 100.0%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Kruskal-Wallis 검정 결과, 언어발달 연령에 따라 기초선-유지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일반화 효과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언어발달(표현언어) 연령에 따른 기초선-일반화 효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일반화 효과

구분	n	PND				χ^2
		Med	M	Min	Max	
3세 미만	9	100.0	100.0	100.0	100.0	1.889
3세~4세 미만	9	100.0	97.8	80.0	100.0	
4세~5세 미만	8	100.0	100.0	100.0	100.0	
5세 이상	4	100.0	90.0	60.0	100.0	

기초선-유지기 효과에서 언어발달 연령이 '3세 미만'은 9명으로 100.0%의 효과를, '3세~4세 미만'은 9명으로 100.0%의 효과를, '4세~5세 미만'은 8명으로 100.0%의 효과를, '5세 이상'은 4명으로 100.0%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Kruskal-Wallis 검정 결과, 언어발달 연령에 따라 기초선-일반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중심 언어중재와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효과

1)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 1기 효과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와 강화된 환경중심언어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 1기 효과는 <표 19>과 같다.

<표 19>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 1기 효과

구분	n	PND				Z
		Med	M	Min	Max	
환경중심 언어중재	43	90.4	87.3	40.0	100.0	-2.323*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8	100.0	97.5	80.0	100.0	

* p<0.05

중재 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1기 효과에서 중재방법이 '환경중심 언어중재'인 경우는 43명으로 90.4%의 효과를,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인 경우는 8명으로 100.0%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Mann-Whitney 검정 결과, 중재방법에 따라 기초선-중재 1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환경중심 언어중재보다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 2기 효과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와 강화된 환경중심언어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 2기 효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 2기 효과

구분	n	PND				Z
		Med	M	Min	Max	
환경중심 언어중재	3	100.0	100.0	100.0	100.0	.000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1	100.0	100.0	100.0	100.0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 2기 효과에서 중재방법이 '환경중심 언어중재'인 경우는 3명으로 100.0%의 효과를,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인 경우는 1명으로 100.0%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Mann-Whitney 검정 결과, 중재방법에 따라 기초선-중재2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 3기 효과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와 강화된 환경중심언어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 3기 효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3기 효과

구분	n	PND			
		Med	M	Min	Max
환경중심 언어중재	3	100.0	100.0	100.0	100.0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중재 3기 효과에서 중재방법이 '환경중심 언어중재'인 경우는 3명으로 100.0%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4)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유지기 효과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와 강화된 환경중심언어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유지기 효과는 <표 22>과 같다.

<표 22>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유지기 효과

구분	n	PND				Z
		Med	M	Min	Max	
환경중심 언어중재	40	100.0	92.3	0.0	100.0	-.977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7	100.0	100.0	100.0	100.0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유지기 효과에서 중재방법이 '환경중심 언어중재'인 경우는 40명으로 100.0%의 효과를,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인 경우는 7명으로 100.0%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Mann-Whitney 검정 결과, 중재방법에 따라 기초선-유지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일반화 효과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와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일반화는 <표 23>와 같다.

<표 23> 중재방법에 따른 기초선-일반화 효과

구분	n	PND				Z
		Med	M	Min	Max	
환경중심 언어중재	25	100.0	97.6	60.0	100.0	-.643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5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일반화 효과에서 중재방법이 '환경중심 언어중재'인 경우는 25명으로 100.0%의 효과를,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인 경우는 5명으로 100.0%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Mann-Whitney 검정 결과, 중재방법에 따라 기초선-일반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환경중심 언어중재 방법/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방법 종류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방법과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방법의 종류는 <표 24>와 같다.

<표 24> 환경중심 언어중재/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환경중심언어중재	요구모델, 시간지연, 우발교수,	3	14.3
	요구모델, 시간지연, 모델링	3	14.3
	요구모델, 시간지연	3	14.3
	요구모델, 시간지연, 우발교수, 아동중심시범	2	9.5
	요구, 모델링, 시간지연,	2	9.5
	요구모델, 모델링, 시간지연, 우발교수	1	4.8
	모델링, 우발교수, 촉구	1	4.8
	요구모델, 시간지연, 촉구	1	4.8
	모델링, 촉구	1	4.8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	환경조절전략, 반응적 상호작용전략, 환경중심 언어중재	4	19.0
	21	100.0	

환경중심언어중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17편(81%)이었고,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4편(19%)이었다. 환경중심언어중재방법 중 ‘요구모델·시간지연·우발교수’, ‘요구모델·시간지연·모델링’, ‘요구모델·시간지연’이 각각 3편(14.3%)으로 나타났다. ‘요구모델·시간지연·우발교수·아동중심시범’, ‘요구·모델링·시간지연’은 각각 2편(9.5%)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방법으로는 ‘환경조절전략·반응적 상호작용전략·환경중심 언어중재’가 4편(19%)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지적장애 학생에게 실시한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연구 문헌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언어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92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석,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21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어발달(표현언어)연령의 효과와 환경중심언어중재와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효과 비교는 비중복 비율(PND)을 활용한 메타분석을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특성으로, 중재목적은 의사소통기능 향상, 언어능력향상과 일반화, 언어능력향상, 자발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아동들의 언어사용의 기능이 지체되어 있는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고 본다. 중재대상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아 및 초등학생에게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볼 때(김윤정, 2011) 연구자가 메타분석 시 키워드에 지적장애아동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보인다. 지적장애아동의 기본 어휘력은 정신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달 속도는 느리지만 12세까지 지속적으로 향상을 나타낸다는 연구(이민식, 2004)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중재 장소는 학교, 복지관, 학교와 기숙사, 기숙사, 유치원, 주간보호실, 언어치료실, 집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재시간으로는 별도시간과 놀이시간, 특별시간, 간식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재시간이 별도시간이라는 점과 가정에서의 중재상황(김소라, 이영철, 2001)이 4.8%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일반화 확대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중재자가 대부분 연구자이기 때문에(90.5%) 중재자가 중재대상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중재자에 대한 정보가 추후 연구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 및 일반화의 실시 여부에서 일반화를 실시한 연구는 52.4%였으며 신뢰도-타당도-중재충실도의 실시율에서는 신뢰도 실시율(90.5%), 타당도 실시율(9.5%), 중재 충실도 실시율(9.5%)을 보였다. 신뢰도 실시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타당도와 중재 충실도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희, 남윤석(2005)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의 내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객관성과 중재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재의 질 부분을 고려한 연구들이 추후에 필요하다고 본다. 이민식(2004)은 일반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마지막 시점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중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유환조(2013)의 연구에서는 기초선부터 일반화를 시작하는 연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영철(1996)은 환경중심언어중재 연구에서 일반화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하고 수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진단도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사도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에서 2~3개의 검사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19편으로(90.5%) 나타나고 있었으며, 지능검사로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가 9편(42.9%)이었고, KEDI-WISC를 실시하는 경우 4편(19.1%)으로 나타났다. 적응검사로 사회성숙도검사 10편(47.6%), 의사소통발달진단도구로는 교육진단검사 9편(42.9%)으로 나타났다. 중재대상자가 지적장애 아동임을 고려하여 볼 때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일수(2007)는 진단 및 의사소통 진단을 위하여 공인된 진단도구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충족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방지희(2013)의 연구에서 지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언어중재 시 진단검사의 미흡성을 주장한 연구와는 상반된다. 하지만 표준화된 언어진단도구들을 활용하여 중재대상자들의 중재전과 중재 후 향상된 부분을 기술하고 중재 완료 후 미래의 언어적 부분을 예측하고 도움을 제시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아동들의 언어발달연령 즉 표현언어 연령을 살펴보면 3세미만이 17명(27%), 3세~4세미만이 21명(33.3%), 4세~5세미만 12명(19%), 5세이상 12명(19%)으로 나타났으며 5세 이상의 언어발달 연령에 따른 기초선-중재1기 효과 PND값은 86.1%의 중간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언어발달연령에 따른 기초선 중재2, 중재3은 100%로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Kruskal-Wallis 검정 결과, 언어발달(표현언어) 연령에 따라 기초선-일반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언어는 수용언어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수용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중재방법도 함께 추후연구에 필요하다.

넷째, 환경중심 언어중재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PND가 환경중심 언어중재 PND보다 높은 효과를 보였음을 볼 때 김윤정(2011)의 연구

와 일치한다. 하지만 중재 초기에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효과가 높게 나왔을 뿐 중재가 진행될수록 효과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확대해석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환경중심언어중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17편(80.9%)이었고,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4편(19.1%)임을 볼 때 지적장애아동 대상연구에서는 강화된 환경중심언어중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설계는 '중다기초선' 방법이 16편(7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례연구'가 2(9.5%)편이었다. 실험설계 선택의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질적분석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헌의 수와 연구대상자들의 동질성 부분에서는 일반화의 한계와 함께 제한점이 있다. 첫째, 분석대상을 순수한 지적장애아동에게만 국한하였고 발달장애, 언어장애, 장애영유아등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중심언어중재의 효과를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다. 둘째, 국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보다 광범위한 지적장애아동의 환경중심언어중재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국외의 학회지와 학위논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령기 대상을 넘어 전 생애적 관점에까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영태 (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영환 (1991). 정신지체아와 자폐증아의 인지 언어와 적응행동의 특성.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운정 (2011).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연구 동향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김정민, 임해주 (2013).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사회성 중재에 대한 국내·외 단일대상 연구 메타분석. **정서·학습연구**, 29(4), 311-339.
- 민진홍 (2002). 발달장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박서연 (2011).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정신지체아동의 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및 자발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은영, 김삼섭, 조광순 (2005). 장애 영·유아를 위한 부모 실행 환경중심 언어중재 연구의 고찰. **언어치료연구**, 14(3), 167-196.
- 박일수 (2007).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자폐성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특수교육연구**, 14(1), 167-191.
- 박지윤 (2012). 자폐범주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언어중재와 PECS중재에 관한

- 문헌 분석-환경중심언어중재와 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지윤, 이은주 (2012). 자폐범주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중심언어중재와 PECS중재에 관한 문헌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17(3), 466-487.
- 이성용, 김진호 (2011). 자기교시 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6(3), 163-189.
- 이소현 역, Richard L. Simpson 외 공저 (2005). **자폐 범주성 장애: 중재와 치료**. 시그마프레스, 서울.
- 이민식 (2004). 정신지체아동의 기본어휘력 발달특성.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영리 (2005). 그림이야기책 반복 읽기 언어중재가 정신지체아동의 언어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 이영철 (1996). 의사소통과 언어중재 프로그램의 일반화 향상방안. **특수교육연구**, 3(1), 115-139.
- 이혜경 (2007). 환경중심 교수 절차를 이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가 정신지체아의 언어 발달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정소영, 김삼섭 (2012). 장애인 의사소통 프로그램 효과 메타분석, **중복 지체부자유아교육**, 55(3). 141-161.
- 한성희, 남윤석 (2005). 특수교육에서의 단일대상연구 적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문헌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0(2), 103-130.
- Fujiki, M. & Brinton, B. (1991). The verbal noncommunicator : A case study.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 in Schools*, 22, 322-333.
- Hemmeter, M. L., & Kaiser, A. P. (1994). Enhanced milieu teaching: Effects of parent-implemented language interven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8, 269-289.
- Hert, B., & Risley, T. R. (1980). In vivo language intervention: Unanticipated general effect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3, 407-432.
- Kaiser, A. P. (1993) Introduction: Enhancing children's social communication. In A. Kaiser, & D. Gray(Eds.), *Communication and language intervention: Vol. 2. Enhancing children's communication: Research foundations for intervention*,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Kaiser, A. P. Yoder, P. J., & Keetz, A. (1992). Evaluating milieu teaching, In S. F. Warren, & J. E. Reichle(Ed.). *Cause and effects in communication and language intervention. 1*, 9-48, Baltimore : Paul H. Books Publishing Co.
- Scruggs, T. E., Mastropieri, M. A., & Casto, G. (1998). Summarizing single-subject research: Issues and applications. *Behavior Modification*, 22, 221-242.

분석문헌

- 박은희 (1992). 훈련가능 정신지체 학생의 향상적 시간지연법과 체계적 촉구 증가법에 의한 어휘입기 효과 비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철 (1995).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정신지체아의 언어습득과 일반화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16(3), 103-124.
- 오성애 (1996). 환경중심 언어지도가 정신지체아의 표현 언어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점조, 여광응 (1999). 환경중심 언어지도가 정신지체 학생의 언어습득 및 일반화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22, 161-177
- 이정희 (1999). 시간지연과 요구모델 언어지도가 시설 정신지체 학생의 표현 언어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상우 (1999).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정신지체아의 생활언어 습득과 일반화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 (2000). 환경중심 언어지도가 정신지체 아동의 자발발화와 일반화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0).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기능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라, 이영철 (2001). 형제,자매의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정신지체 아동의 사회적 언어와 자발 발화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6(3), 55-76
- 신의정 (2002).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정신지체아동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진 (2003).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정신지체아동의 자발어와 반응어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일환 (2004). 환경중심 언어지도가 정신지체 아동의 표현언어 능력과 일반화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보경 (2004). 환경중심 언어지도가 정신지체 아동의 구어표현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2004). 감탄사를 사용한 환경중심 언어치료 프로그램이 정신지체 아동의 어휘 습득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진 (2008).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정신지체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영 (2008).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정신지체 학생의 의사소통 기능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권순복, 권요한 (2008). 환경중심 교수절차를 이용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재가 정신 지체아의 화용론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7(1), 277-300.
- 이정인 (2010).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정신지체아동의 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서연 (2011).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정신지체아동의 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및 자발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금희 (2012). 스크립트를 활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중재가 지적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기능에 미치는 효과. 용인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연경 (2013).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정신지체 유아의 자발발화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alysis of Research Literatures on Milieu Language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Retardation:
between 1992 and 2014**

Song, Hie-seon

Doctoral Students, Dept.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Lee, Young Chul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analysis of research literatures 21 theses, dissertations and articles that offered milieu language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retardation only in between 1992 and July of 2014.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st common goal of the intervention was to improve communicative competency. Many of the studies provided the intervention primarily for preschool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ch denoted that this intervention was applied much to preschool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ost dominant place for the intervention was schools, followed by welfare centers. As for the time for the intervention, the most common case was providing it separately without using the regular timetable, and the second most case was doing it during play. The third most case was using a time for a special purpose, and the fourth most case was using a time for eating between meals. Second, concerning instrumentation, the case that an intelligence test, adjustment test and language test were all conducted at the same time accounted for 52.4 percent. In the case of intelligence test, the case that KEDI-WISC and DAP(Draw-a-Person) were both utilized accounted for 19 percent. Regarding instruments for communication diagnosis, PEP(Psycho Educational Profile) accounted for 42.9 percent. Third, as for PND according to the age of language development, it produced a medium level of effect in the initial stage of intervention, but the effect wasn'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reinforced milieu language intervention was highly effective in the baseline and the intervention stage 1, but the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use of milieu language intervention was more prevailing than that of reinforced milieu language intervention.

Key Words : milieu language intervention, reinforced milieu language intervention, children with intellectual retardation, communication function, analysis of research literatures.

53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부 록>

지적장애아동 환경중심언어중재 개괄적 특성

연구자	중재대상		목표 어휘 유무	연구설계	중재환경 /중재자	PND(범위)			신 뢰 도	타 당 도	중 재 충 실 도	환경중심 언어중재전략	
	연령(학교)	언어발달 연령 (표현언어)				중 재	유 지	일 반 화				환경 중심	강화된 환경중심
1 박은희 (1992)	16:5세(중)	4~5세	○	중다기초선 설계	일반학교 특수학급/ 연구자	100	100	100	○			○	
	20:7세(중)	3~4세											
	15:5세(중)	4~5세											
2 이영철 (1995)	9:7(초)	1:3세	○	사례연구	일반학교 일반교실/ 담당교사	97.43	100	100	○			○	
	9:6(초)	1:6세											
	7:1(초)	1:2세											
3 오성애 (1996)	10:8세(초)	4:3세	○	중다기초선 설계	주간보호실 /연구자	77.10	100	100	○			○	
	10:8세(초)	3:1세											
	9:3세(초)	2:8세											
4 여광웅- 이접조 (1999)	19:4(중고)	1:4세	○	중다기초선 설계	특수학교 간식시간/ 연구자	80.13	100	100	○			○	
	20:4(중고)												
	15:4(중고)												
	15:7(중고)												
5 이정희 (1999)	27세(초)	2:9세	×	중다기초선 설계	특수학교 기숙사/ 연구자- 보육교사	80.37	100	100	○			○	
	21세(초)	2:2세											
	28세(초)	1:4세											
6 차상우 (1999)	14:2세(중)	4:8세	○	중다기초선 설계	일반학교 매점활용/ 연구자	60	53	53	○			○	
	14:6세(중)	4:5세											
	15:4세(중)	4:10세											
7 이원희 (2000)	11:0(초)	1:7세	○	중다기초선 설계	특수학교 점심시간/ 연구자	97.70	100	100	○			○	
	14:7(초)	1:8세											
	13:2(초)	2:6세											
8 이현주 (2000)	5:6세(유)	1:0세	×	중다기초선 설계	복지관/ 연구자	77.73	50		○			○	
	5:7세(유)												
	6:4세(유)												
9 김소라- 이영철 (2001)	10세(초)	3:5세	×	사례연구	가정/ 형제-자매				○			○	
	10세(초)	2:8세											
	10세(초)	3:7세											
10 신의정 (2002)	8:4세(초)	1:9세	○	중다기초선	시설기관 기숙사/ 연구자	95	93	93	○			○	
	9:10세(초)	2:2세											
	9:6세(초)	2:0세											
11 남기진 (2003)	7:2세(초)	2:9세	×	중다기초선	일반학교 특수학급/ 연구자	100	100		○			○	
	7:8세(초)	2:2세											
	7:6세(초)	3:4세											
12 성일환 (2004)	10세(초)	3:8세	○	중다기초선 설계	일반학교 일반학급/ 연구자	85.65	100	100	.			○	
	9:5세(초)	4:1세											
	9:7세(초)	3:7세											

<부 록> 지적장애아동 환경중심언어중재 개괄적 특성(계속)

연구자	중재대상		목표어휘유무	연구설계	중재환경/중재자	PND(범위)			신뢰도	타당도	중재충실도	환경중심 언어중재전략	
	연령(학교)	언어발달 연령(표현언어)				중재	유지	일반화				환경중심	강화된 환경중심
13 오보경 (2004)	7:9세(초)	3:6세	×	중다기초선 설계	복지관/연구자	100	100	100	○			○	
	8:6세(초)	3:3세											
	8:3세(초)	3:2세											
14 이영숙 (2004)	5:3세(유)	1:8세	○	AB설계	언어치료실/연구자							○	
	4:5세(유)	1:8세											
	4:6세(유)	1:7세											
15 김옥진 (2008)	10:2세(초)	2:8세	×	사전사후	복지관/연구자				○			○	
	11:4세(초)	2:7세											
	12:9세(초)	4:2세											
16 서지영 (2008)	17:3세(고)	3:4세	×	중다기초선 설계	일반학교 특수학급/연구자	86.75	100		○			○	
	16:4세(고)	3:11세											
	17:6세(고)	3:9세											
17 이해경·권순복·권요한 (2008)	10.8(초)	1:0세	×	중다기초선 설계	언급없음/연구자				○			○	
	10.1(초)	2:0세											
	11.11(초)	2:6세											
18 이정인 (2010)	10:7(초)	2:9세	×	중다기초선 설계	특수학교 교실/연구자	100	100	100	○	○	○		○
	9:11(초)	2:9세											
	11:0(초)	2:8세											
19 박서연 (2011)	5세(유)	1:6세	○	ABAB	복지관/연구자	100	100	100	○	○	○		○
20 심금희 (2012)	4:6세(유)	2:4세	×	중다기초선 설계	일반학교 일반교실/연구자	93	100		○				○
	4:7세(유)	2:5세											
	5:1세(유)	2:2세											
21 신연경 (2013)	6:2세(유)	0:11세	○	중다기초선 설계	유치원/연구자	100	100	100	○				○